



<왕국은씨와 환담광경>

지난 4월하순 대만의 양계협회장 왕국은(汪國恩)씨가 한국의 양계업계를 알아보고자 내한하였다.

약 4일간에 걸쳐 서울, 부산, 대구등의 양계장을 돌아 본 씨는 「한국 양계업의 성장 속도와 높은 기술 수준에 놀랐다」라고 얘기하였다. 씨의 체류기간중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한국가금협회 김재춘회장의 초청으로 위커킬의 에메랄드 홀에서 환영연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씨는 한국과 중국의 양국 양계인이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」라고 얘기하였다.

왕국은씨 부처 및 영애를 주빈으로 한 이 초청연에는 김재춘회장 부처, 이필용부회장 부처, 최창해부회장 부처, 오봉국박사 부처, 오세정교수 부처, 송정택전무이사 부처 등이 참석하였는데, 이 자리에서 씨는 대만의 양계협회 및 양계업계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였다.

「대만의 양계 역시 한국의 양계업과 대동소이합니다. 대만의 양계수수는 대략 산란계 1,200만수내의, 부로일러 2,500만수내의 정도되며, 이 정도의 수수로도 가끔 과잉생산을 초래하곤 합니다.

그래서 대만의 양계협회에서는 10개 지부를 이용하여 판매조직을 결성하고 생산가격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불매운동을 벌이곤 합니다만 이것이 잘 되지가 않아요. 부로일러의 시장문제는

한국처럼은 어렵지는 않은 편입니다. 대부분이 출하조합등을 형성하기 때문이지요.

또 대만의 양계협회는 주로 정부와 양계인간에 있어서의 교량 역할을 맡아가지고 있지요.

회원은 약 1000명 정도인데 10여개의 지부가 있습니다. 예전에는 협회에서 주로 기술교육을 담당했었는데 지금은 대 정부 건의에 치중하고 있습니다.

질병문제는 대만에서도 역시 마택병과 뉴캐슬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

앞으로 정치적으로나 양계발전적인 면에서 입장이 비슷한 두 나라가 똘똘여러가지 면에서 공존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양계인끼리 상호 교류가 될수 있는 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.

앞으로도 한국의 양계인이 대만에 왔을때 꼭 씨를 찾아 주시기를 바란다 고 얘기한 왕회장은 양국의 발전과 양계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배한후 10시경 환영연을 마쳤다.

왕회장 일행은 28일 일본으로 떠났다.

*** 왕국은씨의 약력**

- ◎ 현 대만 라이온스클럽회장
- ◎ 하이라인 인디언리버 대만특약점.
- ◎ 미·살즈버리 대만 특약점
- ◎ 기타 무역업

대만 양계협회장
汪國恩씨와 함께



<우가 왕국은씨, 좌가 김재춘 회장>